



2026년 8월 16일(제1313호) 연중 제20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오늘도 주님 앞으로!!”

군종신부로 생활하면 1년에 한 번은 체력 검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체력 검정 종목은 3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팔굽혀펴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횟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팔굽혀펴기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푸쉬업 바’ 앞으로 매일매일 찾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운동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운동기구 앞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청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평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가나안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픈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뒤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이방인이며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 앞으로 올 수 있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질렀던 여인은 ‘주님 앞에’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비를 간청했던 여인처럼,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은 성당으로 찾아와 성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성체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미사를 함께 봉헌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어려움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강진욱(세례지요한) 신부
민포대(해군 제2철대시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56,1.6-7

회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 독 시

로마 11,13-15.29-3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 15,21-28

영성제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청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종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선정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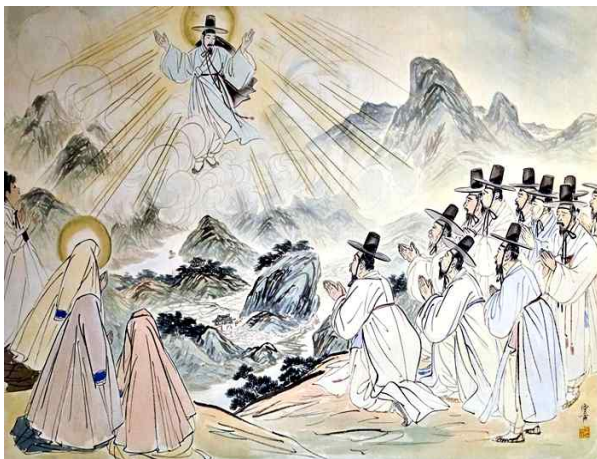
<십자가에 못 박힘>

한국 산악 지형의 언덕처럼 보이는 곳 중앙에는 예수님이, 그 양편에는 두 명의 도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많은 군중과 군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하늘은 마치 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몰아칠 것처럼 검게 변해 있다.

병사 한 명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려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성모님과 탄식하는 여인들이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부활>



<승진>

<부활>

흰 한복을 단정하고 우아하게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고요하고 한적해 보이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홀로 길을 나서고 계신다.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이 선명히 보인다.

<승진>

절벽 같은 곳 오른쪽에는 두 손을 모은 제자들이, 왼쪽에는 성모님과 여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전형적인 동양화의 정경이 배 하나가 떠가는 강과 작은 성곽 같은 것이 위치한 중경과 날카로운 산악 지형의 후경에 펼쳐져 있다. 예수님은 이미 빛에 휩싸여 하늘로 승천하고 계신다.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0주일: 상송대 진영진 신부

◆ 교구장 통장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 때·곳: 8월 16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